

광주시, 광주송정역 승강장 승·하차 구간 분리

광주시가 만성적인 교통 혼잡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 광주송정역 승강장 일대 교통체계를 개편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호남의 관문인 광주송정역 일대의 상습 정체와 혼잡, 보행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승강장 교통체계를 개편,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현장 안내인력 등을 배치해 조기 정착을 유도한 뒤, 상반기 중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광주송정역 일대 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은 승·하차 구간을 기능별로 분리하고, 호출택시 이용 질서를 정비할 것이다. 그동안 역 주변에서는 승차 차량과 하차 차량이 뒤섞이며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지하철) 광주송정역 5번 출구 인근에 집중돼 있던 승하차 차량의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 약 100m 지점인 3번 출구 앞에 '하차 전용구역'을 새롭게 조성했다.

역 앞 교통체계 개편... 상습 정체·혼잡·보행안전 문제 등 해소
100m 전방(3번출구)에 택시·일반차량 하차전용구역 새로 조성
카카오 등 호출택시 승차대 신설... 인력 배치 조기 정착 유도

특히 카카오·우버택시·티머니 등 모바일 플랫폼 회사와 협업해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광주송정역'으로 설정할 경우 자동으로 '하차 전용구역'으로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현재 택시는 새로 조성된 하차 구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일반차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플랫폼 택시 이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철도(지하철) 광주송정역 2번 출구(KTX 광주송정역 건너편) 앞에 '호출택시 승차대'를 신설했다. 플랫폼 시스템 설정을 통해 지정된 승차대에서만 택시 호출이 가능하도록 해 일반 대기 택시와 혼선을 줄이고, 승객이 차량을 찾기 위해 차도를 오가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보행 안전도 강화했다.

승차 방법은 이용수단에 따라 구분된

다. 택시는 지정된 승차대 또는 새로 조성된 호출택시 승차대를 이용하면 된다. 자가용 이용객은 역 앞 도로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주정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30분 무료 회차'가 가능한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이용을 권장한다. 자가용으로 마중 나온 경우 주차빌딩에서 기다렸다가 승객을 탑승시켜 이동하라는 것이다.

광주시는 광주송정역 승강장 교통체계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인력 배치와 시민성을 높인 안내표지판을 설치, 운영한다.

이번 개편안은 택시업계 간담회와 수차례 현장 실사를 거쳐 마련됐으며, 교통흐름 개선은 물론 택시 영업환경 개선, 시민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광주송정역 승



강장 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광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설 명절을 맞아 광주송정역을 이용하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전남교육청, 학생 건강 최우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위생적이고 안전한 무상급식·영양 및 식생활 교육 강화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026학년도 학교급식을 '학생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 운영에 주력한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무상급식을 이어가고, 작은학교 여건에 맞는 급식 운영을 통해 학생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한 한 끼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6 학교급식은 ▲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 영양·식생활 교육 및 지도 ▲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이 핵심이다.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과 이행 관리, 급식 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성장 단계에 맞춘 영양관리와 알레르기·다문화 학생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도 강화한다. 특히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과 급식시설 위생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남교육청은 지난 6일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직벽

실에서 영양교사·영양사, 교육지원청 급식담당자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학교급식 기본계획' 연수를 열고, 2026 학교급식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

연수에서는 '청렴! 전남교육 대전환의 시작입니다'를 주제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청렴한 학교급식 운영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급식 현장의 책무성과 전문성 강화를 함께 다뤘다. 또한 영양상담 연구회에서 제작한 '아이들의 변화를 이끈 쉽고 가벼운 실천 영양상담 워크북' 운영 사례, 2025년 학교급식 오븐 요리 시범학교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며, 참여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공정한 교육기회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청렴이 일상이 되는 학교급식, 신뢰받는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경제적 부담 해소 광주지원 정책... 상생카드·G-패스·출생축하카드

상생카드 10% 할인·청소년 반값 대중교통... 올해부터 신생아·미취업 청년 50만원 지원

광주시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상생카드 할인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상생카드 할인을 비롯해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지(G)-패스',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급,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일자리 공제 사업,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상생카드(체크·선불)는 월 50만원 한도로 구매하거나 충전할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상시 할인하며 오는 28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 인근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후 캐시백으로 추가 제공한다.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G-패스'는 어

린이 무임, 청소년 반값 혜택에 더해 성인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카드'와 연계해 통합 환급체계를 운영한다.

35세부터 39세 시민도 청년으로 포함해 지(G)-패스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태어난 아이에게 1인당 50만원이 충전된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광주에서 출생한 아동이며 첫째아는 출생 직후부터, 둘째아 이상은 1세가 되는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권자는 부모 등 출생신고 신청권자로,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주소지 등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을 기존보다 1세 확대해 9세 미만까지 지원하고, 월 지급액도 10만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 지원한다. 아이돌봄비 돌봄수당도 기존 1만590원에서 1만1120원으로 오른다.

또 19세부터 39세까지 미취업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활동수당과 취·창업 준비형, 직무역량강화형, 기업탐방형 등 다양한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업 기간 취·창업에 성공한 청년에게는 취업성공수당 50만원도 지급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

해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광주시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광주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부담을 0.5%로 낮춘다.

아울러 청년이 일정기간 근속해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광주시가 함께 지원해 만기 때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전국화를 앞두고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90%에서 160%까지 대폭 확대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때 가사, 식사, 동행 등 맞춤형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가 지원하는 정책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정책"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민규 기자

광주·전남경찰, 베이비부머 정년퇴직 러시

퇴직자 광주 70명→110명·전남 117명→147명

인사 공백에 올해 승진자 전년 대비 48% 늘어

"한동안 퇴직 많아... 승진 확대 흐름 이어질 듯"

베이비부머 세대 정년퇴직이 본격화되면서 경찰 조직 내 승진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년퇴직자 증가로 인사 공백이 확대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승진

폭도 함께 커졌다는 분석이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정년퇴직 경찰관은 2024년 73명에서 지난해 110명으로 1년 새 50.7%(37명) 증가했다.

정년퇴직 증가와 맞물려 올해 경찰 조직 내 승진 인원도 크게 확대됐다. 총경 아래 계급(경장~경정) 승진자는 지난해 119명에서 올해 1월 176명으로 전년 대비 47.9%(57명) 증가했다.

계급별로 보면 경장 승진자는 지난해 28명에서 올해 46명으로 64.3%(18명) 늘었고 경사 승진자는 같은 기간 30명에서 40명으로 33.3%(10명) 증가했다.

경위 승진자는 지난해 29명에서 올해 34명으로 17.2%(5명) 늘었다. 경감 승진자는 24명에서 44명으로 83.3%(20명) 급증

했다. 경정 승진자도 지난해 8명에서 올해 12명으로 50%(4명)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전남경찰청 역시 유사하다. 전남지역 정년퇴직 경찰관은 2024년 117명에서 지난해 147명으로 25.6%(30명) 늘었고 경장~경정 승진자는 지난해 252명에서 올해 372명으로 47.6%(120명) 증가했다. 계급별로는 경장 113명→182명(61.1%·69명), 경사 52명→67명(28.8%·15명), 경위 37명→39명(5.4%·2명), 경감 40명→68명(70%·28명), 경정 10명→16명(60%·6명)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승진 확대의 주요 배경으로 정년퇴직자 증가에 따른 구조적 인사 공백을 꼽고 있다. 1990년대 대규모 임용된 경찰관들이 최근 정년 연령에 잇따라 도달하면서 결원이 늘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승진 수요가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정은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 기능 부활에 따른 과장급 보직 확대가 일부 영향을 미쳤고 경감의 경우 2024년 7월 이후 급속 승진 비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됨도 승진 인원 증가 요인으로 해석된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잇따르면서 경찰 조직 승진 인원 증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광주에서는 올해 91명, 내년 125명이 정년퇴직하고 전남에서도 올해 142명, 내년 193명이 정년을 앞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년퇴직자 증가로 발생한 인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진 폭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한동안은 정년퇴직자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승진 인원 확대 기조가 이어질 듯 하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